

## "생태계 되살린다"...고창군, 생태벨트 구축 추진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고창=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전북 고창의 갯벌과 내륙습지에 생태계 복원과 보전을 위한 생태벨트가 구축된다.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에 자리하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심원면 일대 갯벌에 해양생태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국비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바닷가에 경관 숲을 조성하고 갯벌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한 '고창갯벌 해양벨트 조성사업'을 연차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또 내륙습지 가운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아산면 운곡면 운곡습지 일대에 생태관광벨트를 조성 중이다.

총사업비 265억원이 들어갈 '운곡습지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운곡습지 일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운곡습지 일대의 생태관광벨트와 심원면 일대의 갯벌해양 벨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10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중 심원면 일대의 갯벌과 운곡습지 일대는 국가습지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sung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